

이흥재의 세상만사



논설고문

시조는 고려 말기부터 발달해 온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이다. 그렇다면 시조(時調)에는 왜 시(詩) 자가 아닌 때(時) 자가 들어가는 걸까. 이에 대한 의문은 시조(時調)란 말의 연원을 생각하면 금방 풀린다. '시절가조(時節歌調)의 줄임말이 시조인 것이다.

시절가조란 그 시절(時節)에 유행하는 노래 곡조(曲調)다. 쉽게 말해 유행가인 셈이다. 결국 시조는 음악의 한 형식을 갖춘 노래의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시조 즉 노래를 옛날에는 '영언(永言)이라 했다. 말(言)을 길게(永) 빼면 노래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등학교 국어시간에 들은 바 있는 '청구영언(靑丘永言)이 바로 그것이다. '청구(靑丘)는 우리나라를 뜻하는 말이다. 오행설(五行說)에서 청색과 동쪽 방위는 서로 통하기 때문에 동방에 위치한 조산은 '푸른 산등성이' 즉 청구(靑丘)가 된다.

'청구영언'은 '해동가요' '가곡원류'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시조집의 하나다. 우리는 그 청구영

언에 대해 김천택(金天澤)이 편찬한 가집(歌集)이라고 교과서에서 배웠다. 그러나 편찬자가 과연 김천택이 맞는지 대해서는 국문학계에서도 의문이 적지 않았다.

그러던 차 지난 2008년 청구영언의 원본을 편찬한 사람이 홍만종(洪萬宗, 1643-1725)임을 확정하다시피 하는 자료가 발굴됐다. 영산대 김영호 교수는 당시 발표된 논문에서 홍만종이 청구영언 편찬 완료에 즈음해 서문으로 작성한 그의 친필 원고를 공개했다.

청구영언은 누가 편찬했나

김 교수는 청구영언 서문이 홍만종 친필일 수밖에 없는 근거로 무엇보다 제목에 들어간 '영언(永言)에 대한 개념 규정이 김천택이 편집했다고 알려진 기존 청구영언본에는 아예 없다는 사실을 들었다. 또한 현전하는 소위 김천택 편찬본 청구영언 작품 곳곳에 수록된 작품명이 홍만종의 다른 저서에 나오는 구절과 똑같은 사실

표절(剽竊)은 도둑질이라는데

도 제시했다. 따라서 현행본 청구영언은 김천택이 홍만종 원고를 표절한 결과물이라는 주장이다.

기록상 우리나라 최초의 표절물이랄 수 있는 청구영언에 대해 이처럼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요즘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 역시 표절 시비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별그대'는 1609년(광해 1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비행물체 출몰에 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가의 영동하고 기발한 상상이 더해진 드라마다. 400년 전 지구에 온 외계인 도민준(김수현 분)과 톨스타 천송이(전지현 분)의 달콤 발랄 로맨스가 재미있게 전개된다. 이 드라마의 인기는 주인공 김수현의 니트가 최근 한 경매에서 1000원부터 시작해 600만 원대에 낙찰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뿐만이.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가 방영되는 수요일과 목요일을 '별요일'이라 부를 정도로 열광한다.

표절 논란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는데 웹툰 작가 강경욱이 자신의 만화 '설희'를 '별그대'가

표절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별그대'의 박지은 작가는 "단 한 번도 '설희'를 본 적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두 작품 모두 광해군 시대에 목격된 미확인 비행물체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별그대'와 조선왕조실록

왕조실록 광해군 일기에는 1609년 9월 25일 강원감사 이형욱이 다음과 같이 전언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양양부(襄陽府)에서는 8월 25일 미시(未時)에 풀관(品官)인 김문위(金文緯)의 집 뜰 가운데 처마 아래의 땅 위에서 갑자기 세숫대야처럼 생긴 둥글고 빛나는 것이 나타나(忽有圓光炯如盤) 처음에는 땅에 내릴 듯하다니 곧 1장 정도 굵어 올라갔는데 마치 어떤 기운이 공중에 뜨는 것 같았습니다." 400년 전 조선 땅에 UFO가 출몰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이를 실록에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광해군일기는 당시 양양뿐만 아니라 강원도 인근 곳

곳에서 미확인 비행물체가 목격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된 만화와 드라마의 줄거리는 유사할까? 표절을 주장하는 쪽과 반박하는 쪽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지만 소재와 인물이 비슷해도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표절(剽竊)은 '표(剽)나 '절(竊)에 모두 '훔치다'는 뜻이 있는 만큼 글자 그대로 도둑질이다. 당연히 작가의 양심이 걸린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종종 여러 분야에서 표절 논란이 일어나곤 한다. 다행히 '별그대'는 그 혐의를 벗어나는 것 같다. 온도계의 발명자가 여섯 명이나 되며 백신의 효능을 각자 발견한 과학자도 네 명이나 되는 것처럼 소재가 비슷하다 해서 대표적은 아니다. 어찌 됐든 수많은 여성(女心)을 뒤흔들었던 '별그대'는 아쉬움을 남긴 채 다음 주 종영(終映)되는데 이번에는 7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수상한 그녀'의 OST '한 번 더'가 표절 시비에 휩싸이고 있다.

광주서 제일 비싼 땅 총장로 '스케쳐스' m²당 970만원

〈우체국 맞은편〉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3.63% 상승

'혁신도시' 나주 19.79% ↑

광주는 1.4% 올라... 전국 최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사진) 이전 효과로 나주시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19.79%를 기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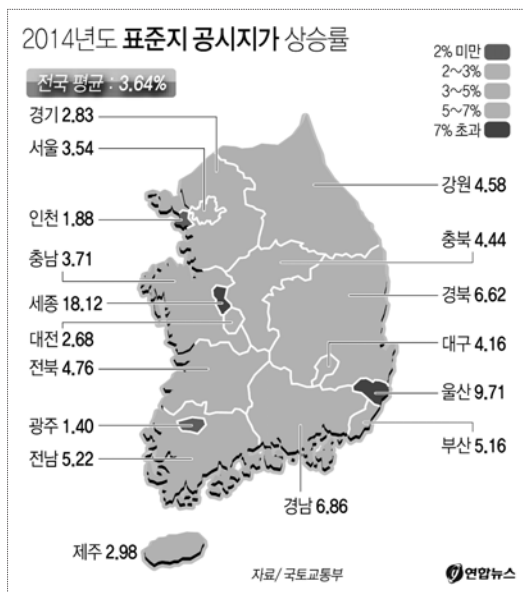
송림그린테크단지 및 대마전자자동차산업단지 조성(영광) 등에 기인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5.22% 상승했다.

특히 나주는 혁신도시 개발과 나주목 관아 복원사업, 미래일반산업단지 등 서남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하면서 19.79%나 올랐다. 목표는 전남도청 인근 신흥택지개발지역 외 지역의 지가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0.86% 상승에 그쳤다.

광주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동구 총장로 우체국 맞은 편 '스케쳐스'(스프츠용품 전문점)로, m²당 970만원이었으며 광산구 동림동의 임야는 m²당 620원으로 공시지가가 가장 낮았다.

전남에서는 목포 죽동의 '원조순대떡볶이'가 가장 비싸, m²당 384만원을 기록했고, 진도 조도면의 놀목도리의 숲은 m²당 165원에 불과했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해당 경력 없으면 공공기관장·감사 못해

기재부 업무계획 보고...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 도입

앞으로 해당 업무 경력이 없으면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에 선임되지 못한다. 또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한 공공기관 경쟁체제가 확대되고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에는 공공기관 정상화 의지가 강하게 담겼다. 우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해 상반기 중 기관장, 감사 등 임원 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키로 했다. 호주와 그리스처럼 5년 이상 업무경력 등 임원 자격기준을 계량화하겠다는 것이다. 업무와 무관한 정치권 등 낙하산 인사의 무분별한 선임을 막기 위해서다.

공공기관 부채감축 차원에서는 '공사채 발행 총량

관리제'를 도입해 공사채 발행 물량을 제한키로 했다. 향후 3년간 총량은 4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체제를 확대한다.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자회사를 신설하거나 기업분할을 하고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소되는 공공서비스 중 민간 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LH 공사의 임대주택 사업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직했을 때 해당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입찰비리 발생 기관은 입찰업무를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2년간 의무적으로 위탁토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수준을 확대한다. /연합뉴스

영화 관람료 1천원 인상 CGV 24일부터

CGV는 20일 "2D 영화의 관람료는 최대 1000원 오르고 3D 영화는 최대 200원 내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CGV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영화 관람료 다양화 정책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전국 최대(111곳)의 멀티플렉스 체인을 보유한 CGV가 2D 영화 관람료를 인상함에 따라 업계 2위인 롯데시네마와 3위 메가박스도 조만간 영화 관람료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CGV는 시간대에 따라 일반 2D 영화는 5000~1만원, 3D 영화는 8000~1만2000원으로 가격대를 책정했다. 기존 '조조'(담일 상영 첫 영화)와 '일반'으로 나뉘던 가격 체계도 '조조'(10시 이전) '주간'(10~16시) '프리미엄'(16시~23시) '심야'(23시~)로 세분화했다. '조조'를 제외한 주말(금~일) 요금은 주중(월~목) 요금보다 통상 1000원 비싸다.

또 온라인 예매 고객을 위해 온라인·모바일 특별할인요금제도 도입했다. /연합뉴스

부 고

이근우 변호사(前 광주지검 차장검사) 부인 백숙자여사(68세)께서 2014년 2월 20일 오전 06시 30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 소 : 광주 북구 각화동 그린 장례식장4층 특실
발인일시 : 2월 23일 일요일 오전 08:00
장 지 : 경기 광주 한남공원묘지
호 상 : 前 광주광역시청 고재유

2014년 2월 21일

아들 이의준(미국 유학중)
딸 재연(국민은행 서울 여의도지점 차장)
사위 강지성(대전지검 검사, 미국 연수중)
박진원(대구지검 검사, 국가정보원 파견)

연락처 : 062-250-4455(그린장례식장)

[개별부고는 생략합니다]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실험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방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협

공동본점 | 227-4474
금호지점 | 383-4474
풍암지점 | 653-4474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증-52297호

노안시력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